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4차 지원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제4차 지원신청
- 회의일시 : 2017. 12. 5(화) 10:00~16:3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5층 스튜디오 하늘

-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 제 4차 공모에는 연극 89, 무용 13, 음악 105, 전통예술 12 건을 합쳐 총 220 작품이 지원했습니다. 각 장르마다 두 명의 심사 위원이 배정되어 미리 보내온 자료를 충분히 리서치한 후, 12월 5일 10시부터 4시 반까지 스튜디오 하늘에 모여 6시간 이상의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제시된 사항이나 규칙을 어긴 경우는 제외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작품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심의 기준인 '공연작품의 예술성(50%)', '공연단체의 역량(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에 따라 신청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각 항목마다 A에서 E 사이 하나의 점수를 주었고, 이를 비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후에 연극 89편 중 31편(31%), 무용 13편 중 13편(100%), 음악 105편 중 40편(38%), 전통 분야 13편 중 12편(92%)가 선정되었습니다.

● 연극 분야

연극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드라마 중심의 창작극, 번역극, 실험적 공연, 뮤지컬, 어린이 연극, 인형극 등의 다채로운 양식의 공연 89편이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31편을 선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상업성이 농후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 * 창작극에 대한 고려를 함
- * 유아 및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
- *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해온 극단에 대한 고려를 함
- * 3년간의 활동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해온 단체를 우선 선정함.

● 무용 분야

13편의 지원 작품 중, 한국 무용 5편, 현대 무용 7편, 발레 1편이 신청하였습니다. 한국 무용은 무용 동작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춤 재구성이 많았고, 현대 무용과 발레는 대부분이 창작품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과 단체 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
- *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에 주목함
- * 대중적 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함
- * 과거 활동과 업적에 주목함

● 음악분야

우선적으로 단체 및 개인의 예술성과 역량,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105건의 신청 작품 중 40편의 작품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 * 음악 분야의 발전 및 사회적 향유를 위해 단체 및 개인의 역량 판단
- * 행정적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사업들은 선정에서 제외
- * 지원 작품과 개인, 단체의 예술성, 기여도 고려
- * 상업적인 취지의 공연이나 지나친 쇼 케이스 성향의 공연 제외

● 전통분야

13편의 신청 작품 모두가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되어 지원포기 의사를 밝힌 1작품을 제외한 12편에 대해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다만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다 보니 약간의 지원예정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 예술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예술가들이 외롭고 힘겹게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도록 기다리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쉽게 탈락한 팀에 대해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